여러분이 주인이 없으면 에너지를 다 뺏깁니다

☞ 29면에서 계속

렇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도 죽지 않죠. 물신(水神)도 자기요, 목신(木神)도 자기요, 지신(地神)도 자기요, 관세음(觀世音)도 자기요, 지장(地藏)도 자기요 모두 자긴데 누가 뭐, 끌어가고 오라 가라 할 게 없거든. 이거 벗어나십시오.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. 질문이 아니라 토론이요. 알아도 안다고 생각 마시고 그냥 토론하는 거요, 그냥 말입니다.

질문자1(남): 예, 조금 전에 스님께서 별들도 생명이 다하면 또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러면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저희 지구도 별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이 지구는 생겨난 지가 얼마나 됐는지, 나이가 몇 살이나 됐는지 그걸 알고 싶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사람이 이 지구에 살기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었느냐? 또 부처님께서 사생(四生)으로, 그러니까 생명이 네 가지 방법으로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러면 인간은 제일 처음에 어떤 방법으로, 지금은 우리가 물론 태생(胎生)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

큰스님: 여직껏 얘기를 했는데도 그 질문을 하시는데요. 보세요, 우리는 태생으로 태어난다 하지만 우리 속에 들어 있는 것도 태생으로 태어납니까? 모두가 화(化)해서 거기 종합해서 태어납니다. 그러니까 그림자가 붙듯 그 의식이 붙어서 태어납니다.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바람에 그것도 화해서 자꾸 자랍니다, 거기 같이. 그러니 어떻게 증명이 안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난 지가 세 살밖에 안 된다는 거죠. 모두 쳐도 세 살밖에 안 되는 거죠, 지구도 언제 태어났는가 하면 태어난 지 세 살밖에 안 되었다는 거죠, 예? 왜 세 살밖에 안 된다고 하는지 여러분이 잘 새겨 보면 알 겁니다. 인생뿐만 아니라 모두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니까요.

여기만 별성이 있고 혹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수없이 있으니까요. 왜 그러면 그것은 껍데기를 벗고 그러느냐? 벗고 작용하는 바람에 에너지가 바로 배출되고 하는 걸요? 우리가 운동을 안 한다면 그건 죽은 별이지 그게 산 별입니까? 또 껍데기를 벗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옷 벗듯이 그냥 이렇게 벗어 버리면…, 그것째 다 죽는 게 아닙니다. 삼각형이다 사각형이다 오각형이다 육각형이다, 이렇게도 생긴 별들이, 나이 먹는 대로 우리들이 이렇게 차이가 있듯이, 그렇게 있다고 봅니다.

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 생명,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불성하고 둘이냐? 둘이 아닙니다. 다 연결돼 있습니다. 우리 몸뚱이는 여기 살고 있지만 그 별들로서 또 살고 있습니다. 이런 말을 하면 미쳤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이 조그마하면 조그만 대로 별도 조그마할 거고 우리의 마음이 크면 별도 클 겁니다. 이 세상에 인물이 태어난다면 큰 별이 났다고 그러죠. 그래서 별똥이 떨어진다 하는 것도 별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, 사람이 죽으면 그 옷이 흘어져서 원점으로 가듯이 그것도 역시 옷을 벗는 거나 마찬가지죠.

그래서 그 거리가 너무도 멀고 공기에 의해서 이게 돌아가니까 그것이 다 망가져서 가루로 될 수도 있고, 중간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가 하면 이 지구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. 그럼 그 흙이 어디서 생겼고 그 먼지가 어디서 생겼는가? 보라고요! 그렇게 그렇게 끼리끼리들 되지 않습니까? 우리도 흙 한 줌이 된다고 그러죠. 물 한 점, 흙 한 점, 바람 한 점, 불 한 점 이렇게 해서 다 흩어져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치가 있죠. 그렇듯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죠. 그렇다고 여기 지구에 그러한 흙이 있다고 그래서, 그런 먼지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 지구가 무거워서 못 사는 일은 없습니다. 아주 가벼우니까요. 그렇기 때문에 일체 만물이 살고 있잖습니까? 흙이 아니라면 또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? 흙을 누가 갖다 준 겁니까? 우리가 흙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죽으면 또 흙이 돼 주고 우리가 또 살고 있고 그런 겁니다. 역시 아래 위 전체가 다 돌아가면서 그렇죠, 주고받고 주고받고.

삼천대천세계가, 전 우주가 한 회사일 것입니다. 한 회사라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. 한 회사에서 전부 부서별로 일을 하고 있듯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.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이럭하고 있지만 우린 땅바닥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. 우리도 떠 있습니다, 지금. 아마 지구에 붙어서 사는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죠. 허허허…. 아니요, 지구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죠. 왜 우리가 붙어서 사는 벌레입니까? 하여튼 막말을 한다면 벌레라고도 할 수 있겠지마는…, 그럼 뭐 때문에 우리가 거기 붙어서 사느냐? 우리는 그 속에서 진화돼서 우뚝 섰기 때문이다 이겁니다.

그런데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물질로 됐기 때문이죠. 물질로 됐기 때문에, 전 세계가 전부 상대성 원리로 '내가 뺏는다, 먹는다. 내가 하나라도 더 올라가야지. 뺏어야지, 먹어야지.' 하는 먹고사는 것 때문에 모두 문제가 일어난 거죠.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벗어나야 한다는 것도, 우리가 이 공부를 해야 한다 하는 것도…, 지금 별성이나 저런 혹성들 이 자체를 본다면 전부 상대성 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 그건 자동적으로, 힘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뺏기게 돼 있으니까요. 보세요, 여러분도 이 주인이 없으면 뺏깁니다. 에너지를 다 뺏깁니다. 그걸 거짓말로 알지 마세요. 또 자석이라고 하거나 자력이라고 하거나, 자력이 없으면 뺏기듯이 큰 자석이 여기 놓여 있다면 작은 쇳덩어리가 그저 스치기만 해도 그리로 붙어 버립니다. 그렇듯이 이거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량 뺏길 수 있는 겁니다.

> 자기가 마음대로 가지고 할 수 있는 자기 보배!
> 그런데 여러분이 원래 주장자가 있어서 보배가 그렇게 나오는데
> 자꾸 딴 생각이 나오게 옆댕이에서 꿰져요.
>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마라.
> 나오는 대로 무조건 거기다 맡기고 살자 이겁니다.

만약에 우리 지구 사람들이 이 도리를 모른다면 지구에서도 에너지가 무한량 소멸되죠.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, 생물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혹성 별성과 마주친다 하더라도 여기에 주인이 없다면 에너지는 소모되고 말 것입니다. 지금 지구라는 데가 사람이 많이 살고 있고 생명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줄어들고 그랬지만 우리가 이 공부를 한다면 에너지를 다시 벌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지구의 수명은 길어진다는 문제가 나옵니다. 영원히 보존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.

그러나 그뿐이 아니라,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한번 잘해 보십시오. 왜, 목성이나 토성이나 이런 곳이 얼음으로 덮여 있다고 그 옛날 소리처럼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 한번 잘 알아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런 데에 생명이 없는 게 아닙니다. 생명이 잠자고 있을 뿐이죠. 만약에 우리가 공부를 해서 그 생명을 내놓는다 한다면, 우리가 이런 도리를 완전히 증득하고 난 뒤에는 모르지만 이 도리를 허명무스름하게 해가지고는 그 잠자는 모든 걸 깨울 수는 없습니다. 만약에 잠자는 것을 깨운다면 서로 잡아먹을 테니까요. 진화되지 않은 것도 있고 진화된 것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을, 즉 말하자면 영혼이라는 것을 뺏어다가 막 살 테니까 우리는 껍데기만 남을 거란 말입니다, 이 도리를 모르면. 멀고 가깝고가 없이 말입니다. 엄청난 문제죠.

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'저 사람 어떻게 조금 간 거 아냐?' 허허허…. 이럴 수도 있죠. 갔다거나 말거나, 그저 난 누가 뭐래도 관여 안 하고 편안하게 삽니다. 그런다 해도 싱긋이 한 번 더 웃어 버리면 덜 늙죠. 그럴 거 아닙니까? 만약에 여러분이 내 정체를 알고 싶다면, 열심히들 공부하셔서 정체를 알아보세요. 어디 가서 살고 있고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니는지, 내가 여기만 살고 있는지, 어디 다른 데 또 살고 있는지 그것도요.

여러분이 이 공부를 해서 전 세계뿐만 아니라 전 우주 삼라대천세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서 그 잠자는 모두를 깨운다면, 어느 혹성에서나 생명들이 다 살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문제들이 아마 허다하게 나오겠죠. 뜨거워서 못 살고, 차서 못 살고, 얼어서 못 살고 이런 게 아닙니다. 조절하기에 달렸죠. 그래서 부처님이 그 에너지를 나르는 데도 멀고 가깝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. 이건 물질이라야 나르는 데 멀고 가까운 것이 있는 거지, 물질이 화해서 다른 게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날라갈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운반할 수도 있는 거고요. 아닐 거 같습니까?

나무껍데기 하나가 가공이 돼서 어떻게 종이가 됩니까? 그렇게 나무껍데기로 옮기려면 힘이 드니까 종이로 만들어서 옮기면 좋을 겁니다, 아마. 종이보다도 더 가볍게 할 수 있는 물질이 또 있지요. 여러분이 임신을 하면 물질은 다 없어지고 그 아주 형체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게 딱 그냥 헤아릴 수도 없이 같이 몸속에서 자란다는 걸 아셔야 돼요. 만약에 수천 배 더 가벼운, 형체가 없는 것을 어느 혹성에 갖다가 뿌려 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뜨거운 거를 찬 데다 갖다 놓으면 찬 거 녹으니 좋고…. 그런데 지금 그 작업이 문제가 아닙니다. 깨워 놓았을 때 그것이 어떻게 발생이 될 것이냐는 문제죠.

내가 이런 말을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는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. 누가 뭐래도 허황된 소리, 허황된 살림, 허황되게 내 인생을 그렇게 팽개치는 사람이 아닙니다. 또 나와 여러분이 둘이 아닌 까닭에 이 공부를 꼭 해서 앞으로 그 생명들을 건질 수 있어야죠. 이 도리를 모르는 그 생명들과 중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도리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. 내 몸속에 있는 이 생명들, 중생들은 나쁜지 좋은지도 모르고서 악으로 내가 무엇을 훔치러 간다고 해도 그대로 따라 줘요. 그리고 좋은 일을 하자고 그러면 좋은 일을 하는 대로 또 따라 줘요.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중생들이니 여러분의 마음이 이것을 다스리면서 이끌어 가지고 가야 보살로 화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. 이거부터, 내 혹성에 들어 있는 것부터 할 줄 알아야 저 딴 혹성에 들어 있는 걸 해결하지요. 내 혹성의 해결도 못하면서 남의 혹성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? 저는 그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. 또 말씀해 보세요. 아니, 질문 하나 하는데 내가 얼마나 길게 말을 했습니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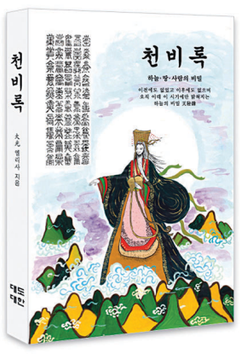
질문자2(남): 아까 그 주장자가 없으면 빈집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 보겠습니다. 그게 마음이 허해서 빈집이 되면 세균도 들어오고, 딴 엉뚱한 생각도 들어와서 정신도 어지러울 테고…. 그래서 생각을 해 볼 때에, 선원에 열심히 다니고 경 읽기도 열심히 해서 뭔가에 가까이 가겠다는 의지가 주장자인가, 아니면 마음을 편안하고 고요하게 해 가지고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주장자인가. 다시 한번 여쭤 보려고….

큰스님: 시장 바닥에 나가든 여기를 오든, 댁의 안방에 있든 회사를 나가든 흔들리지 않는, 근본적으로 아예 여기서만이 들이고 낼 수 있다는 그 믿음, 그걸로써 주장자가 선다면 그게 주장자입니다. 허허허…. 그 얼마나 좋습니까? 자기 소유, 자기가 마음대로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자기 보배! 그런데 댁이 원래 주장자가 있어서 보배가 그렇게 나오는데, 딴생각이 나오게 옆댕이에서 자꾸 꿰져요.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마라. 모든 걸 다스리고, 나오는 대로 무조건 거기다 맡기고 살자 이거죠.

※위 법문은 1991년 8월 4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. 한마음선원 홈페이지(www.hanmaum.org)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.

천비록(하늘·땅·사람의 비밀)

"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며
오직 이때 이시기에만 밝혀지는
하늘 · 땅 · 사람의 비밀 天秘錄!"



도서 구입 문의
063)643-7285
도서출판 대도대한

값 15,000원

이 책은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(神)들의 역사를 밝혔으며, 신(神)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,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,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.

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, 그 누구라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,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, 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이로 나뉘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.

교보문고 / 영풍문고 / 반디앤루니스 / 알라딘 / 예스24 /
동원서적/경인문고/홍문당서점/계룡문고/처용서림/세원출판/춘양당서점/충장서림/홍지서림/영광도서/세기서림/탐라문고 등에서 절찬리 판매중

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

불교의 현대화
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

불교의 생활화
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

불교의 세계화
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

현대불교신문사는
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
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
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

구독문의 : 02)2004-8200

무료배송 66%



엡손 AL-2310D
125,000원

무료배송 57%



교세라 FS-1120D
110,000원

무료배송 70%



OKI-B410D
90,000원

모델별 한정수량 특가 판매
하루사용 AAA급
브랜드 레이저프린트(흑백)
특별가 행사
-하루사용 특AAA급 중고
-전시상품 절대 아님
-16시 이전 주문 당일배송

구매문의
칠성상회 02-879-2007
네이버 다음에서 칠성상회검색
입금계좌:농협 1282-17-003433
예금주 한메소프트(주)